

스트리밍 전쟁, 2026 포지셔닝 맵

글로벌 구독자(규모)와 월 구독료(가격) 두 축으로 일곱 플랫폼을 한 장에 — 누가 어디에 서 있나.

두 축 · 네 사분면

프리미엄 스케일

고가 + 대형

매스 · 번들

저가 + 대형

프리미엄 니치

고가 + 소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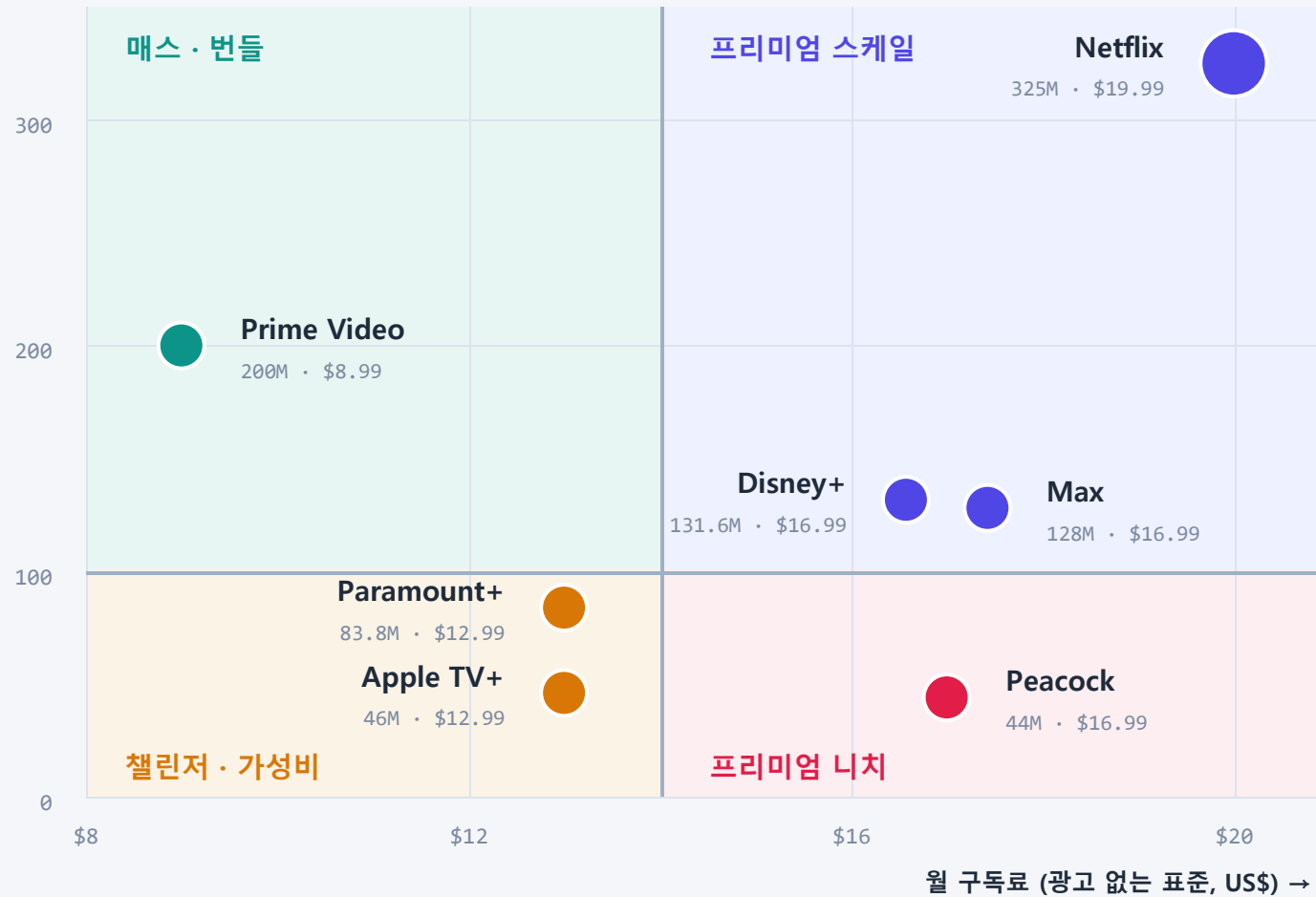
챌린저 · 가성비

저가 + 소형

포지셔닝 맵

규모 × 가격 — 일곱 플랫폼의 자리

↑ 글로벌 구독자 (백만)



사분면 읽기

- **프리미엄 스케일 · 고가 + 대형**
Netflix · Disney+ · Max
- **매스 · 번들 · 저가 + 대형**
Prime Video
- **프리미엄 니치 · 고가 + 소형**
Peacock
- **챌린저 · 가성비 · 저가 + 소형**
Paramount+ · Apple TV+

사분면 해설

네 자리, 네 전략

● 매스 · 번들

저가 + 대형

저가·대형 — 아마존 번들이 만든 규모. 순수 SVOD 경쟁이 아닌 묶음의 힘.

· Prime Video

● 프리미엄 스케일

고가 + 대형

규모와 가격을 모두 쥔 본진. 콘텐츠 투자 여력이 다시 구독자를 부른다.

· Netflix Disney+ Max

● 챌린저 · 가성비

저가 + 소형

가성비 도전자. 묶음·번들로 규모를 키워야 본진에 다가선다.

· Paramount+ Apple TV+

● 프리미엄 니치

고가 + 소형

비싸지만 작다. 스포츠·NBC 자산으로 버티며 번들로 가격을 방어.

· Peacock

데이터 테이블

구독자 순위와 가격

플랫폼	구독자(M)	월요금(\$)	사분면
Netflix	325	19.99	프리미엄 스케일
Prime Video	~200	8.99	매스·번들
Disney+	131.6	16.99	프리미엄 스케일
Max	128	16.99	프리미엄 스케일
Paramount+	83.8	12.99	챌린저·가성비
Apple TV+	~46	12.99	챌린저·가성비
Peacock	44	16.99	프리미엄 니치

데이터 주의

- △ Prime Video·Apple TV+ 구독자는 미공개 → 3자 추정.
- △ Disney+는 Hotstar 분리 재편 후 기준.
- △ 요금은 미국 광고 없는 표준 요금제 — 지역·요금제·번들에 따라 상이.
- △ 구독자 시점 혼재(2025말~Q3 2026).

인사이트

세 줄 요약

01 넷플릭스 독주

325M으로 2위 Prime Video(~200M)의 1.6배, Disney+(131.6M)의 2.5배. 규모의 경제가 콘텐츠 투자 여력으로 이어진다.

02 번들이 가격을 지킨다

Prime Video는 저가(\$8.99)·대형(아마존 번들). Apple TV+·Peacock은 \$2짜리 묶음으로 가격을 방어한다.

03 요금은 수렴 중

광고 없는 표준 요금이 \$17~20에 몰린다(넷플 \$19.99 · 디즈니·맥스·피콕 \$16.99). 차별화 축은 가격이 아니라 콘텐츠다.

2.5×

넷플릭스(325M)는 디즈니+(131.6M)의 2.5배 — 규모가 콘텐츠 투자를 부르고, 투자가 다시 규모를 부른다.

스케일은 넷플릭스가, 가성비는 번들이. 2026 스트리밍은 '규모'와 '묶음'의 싸움이 됐다.

가격은 한곳으로 수렴하고, 구독자는 한 곳으로 쏠린다 — 다음 전선은 콘텐츠와 번들이다.